

Issue Comment

2018. 11.19

음식료

위클리 및 종목 코멘트

음식료 Weekly

메리츠 음식료 김정욱 (6414@meritz.co.kr)

음식료

Analyst 김정욱
02. 6098-6689
6414@meritz.co.kr

1. 전주 동향

음식료

11월 첫째 주 음식료(식품, 음료, 담배) 주가는 전주 대비 5.1% 상승. 원/달러 환율은 1,128.6원으로 상승. 곡물가는 옥수수(-1.4% WoW), 소맥(+0.9% WoW), 대두(+1.9% WoW), 원당(-0.3% WoW) 기록. 옥수수는 WTI기준 유가 약세가 지속되며 예탄을 수요 부진 우려가 확대. 옥수수 수출 견역 물량도 전주 대비 부진한 가운데 수확 진행률은 직전 5년 평균 87%를 만회하게 될 것이란 관측이 제시되며 가격 지속 하락. 소맥은 글로벌 기상 악화 영향에 소맥 공급량 감소가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 봄밀 작황 호조로 미국산 소맥 수출 확대 기대감이 형성되며 가격 강세. 대두는 미-중간 무역협상 기대감 형성 및 미국 대두 크레이시 물량의 역대 최대치 경신 소식으로 전주 대비 가격 1.9% 상승. 원당은 브라질 해발화 약세 흐름이 이어지며 브라질 사탕수수 농가들의 원당 판매 의욕 확대. 옥수수와 함께 예탄을 수요 부진 우려의 영향을 받아 원당 가격 약보합 마감. 중국 라이신 공급 타이트한 상황 지속되며 단기간 가격 상승 전망. 기상 여건이 악화되며 라이신 원재료 가격 상승된 점이 주요 원인. 일부 지역 보조금도 축소. 단기간 가격 강세 지속되나 향후 기상 여건 개선되며 안정화 전망. Fufeng, Dongxiao 출하 예정. 단백질 비중 축소 규정 11/1일부터 시행. 메티오닌은 중국 국내 제조업체들의 생산 증단으로 타이트한 공급 상황. 메티오닌의 수출 세금 환급률 13% → 16%로 인상 소식은 중국 내 제조업체 수출 의지를 제고시킴. Xinhecheng 공장 증단 상태 유지. 국내 제조업체 공장 가동 지연 지속될 경우 가격 상승 여지 존재. 쓰레오닌은 재고 압력 지속으로 단기간 약세 지속 전망. Yanfeng과 Dongxiao는 11월 중순 쓰레오닌 공급 완화에 주의하며 라이신 생산 예정. 트립토판은 단기간 가격 안정 전망. 환경 보호 규제로 매화 Tonglian 공장, Ningxia Yipin 공장 생산 증단 중.

국내 이벤트는 1. CJ제일제당, 미국 냉동식품 생산 유통업체 쉐완스컴퍼니 2.1조원에 인수 확정. 대주주로부터 지분 20% 재투자 유치, 훔 딜리버리 사업부 인수 대상에서 제외하며 재무 부담 완화. 19년 초 인수 마무리 계획 2.라면, 팔도 12월부터 대표 커리면 '왕두껑' 소비자 가격 1,050원 → 1,150원으로 9.5% 인상. 비빔면 가격 4.7% 인상 계획 3. 남양유업, 분유 이율질 논란에 대해 '세스코 식품안전연구소'와 '고려대 생생자원연구소'의 제조 공정상 이율질 혼입 불가 결과 공개 4.하림, 2천억원 투자해 공장 신축 및 기계설비 도입 결정 5. 보해양조, 10월 생산한 '15년 숙성 매취순' 3만병 출시 2주 만에 완판

2. 금주 전망

음식료: 3Q18 Preview 전년도 높은 베이스 효과로 YoY 실적 보다는 QoQ 개선 및 예상치 상회 종목에 주목: CJ제일제당, 오리온, 대상, 매일유업 실적 호조 예상. KT&G는 실적은 부진하나 19년 수출 회복 기대감 유호

3Q18 Preview CJ제일제당 3Q18 실적 전망치는 매출액 48,933억원 +10.9% YoY, 영업이익 2,558억원 -5.0% YoY 으로 컨센서스 대비 매출액 4.1% 상회, 영업이익 4.3% 하회 예상. 영업이익 하회는 대부분 대한통운 실적 변동치에 기인하며 대한통운을 제외한 영업이익은 2,033억원으로 시장 기대치에 충족할 전망. 추석 효과와 주력제품/HMR 매출 호조 영향으로 본업 영업이익은 예상치 상회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 오리온은 3Q18 실적은 매출액 4,970억 원 -14.3% YoY, 영업이익 790억원 -12.1% YoY 으로 컨센서스 대비 각각 29% 하회, 43% 상회 예상. 전년대비 매출액, 영업이익이 감소하는 이유는 회계변경에 따른 매출조정과 3Q17 사드 치후 중국법인의 대규모 1+1 할인 매출의 기저(基底) 때문. 2분기 실적 부진 이후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낮아진 상황에서 월 단위로 개선되고 있는 중국 매출액 회복에 주목할 시점으로 판단. 매일유업 3Q18 실적은 매출액 3,316억원 -2.0% YoY, 영업이익 220억원 +2.6% YoY 으로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실적 예상. 매출액은 회계변경 영향으로 2% 감소, 전년 동일 기준 1~2% 상장 흐름 유지. 중국 수출 분유, 백색시유, 상하목장 등 매출 성장 주도 카테고리 외형 확대 지속. 전년대비 마케팅비 절감 효과로 영업이익 성장 흐름은 이어질 전망. 3Q18 Review KT&G 영업이익이 컨센서스를 5.3% 하회했지만 당시 추정치 3,601억원 및 낮아진 시장 기대치에 부합한 실적. 특히 수출과 관련하여 현지 판매가 순항 중이며 환율 영향이 대부분이라는 설명 4분기 말 1분기초 안전재고 소진과 재주문이 예상된다는 점 긍정적. 과거 13~14년 사례를 참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19년 수출 회복에 대한 기대감 확대 예상. 배당에 대한 가이던스가 다소 보수적이지만 4,000원이라는 절대 수준이 변동 없음을 확인. 수출회복 시그널 발생이 주가 상승 트리거가 될 전망

3. 관심종목 & 종목 코멘트

관심종목

매일유업 (267980)

3Q18 실적은 매출액은 전년동일 기준 1~2% 성장세, 백색시유, 수출분유, 커피음료, 상하목장 등 매출 성장 주도. 매출 성장과 백색시유의 수익성 개선, 전년비 마케팅비 절감 노력으로 영업이익도 매출 흐름과 유사한 성장 예상. 시장 컨센 220억원대 부합 예상. 가격 인상은 백색시유 1위 서울우유, 2위 남양유업이 발표를 완료. 검토중인 단계로 판단. 백색시유 매출비중 30% 차지하는 B2B 채널의 매출 성장흐름을 지속. 백색시유 전체적으로 낮은 한 자리 수 매출 성장 예상. 수익성 측면에서 1Q18~3Q18 QoQ 적자폭 축소는 지속 중. 발효유는 3Q18은 프로모션 효과로 매출액은 5% 이상 성장세. 커피음료 3Q18 매출액 5~6% 성장, 폭염과 경쟁 심화가 맞물리는 환경에서 무리한 판촉 경쟁은 지양했음. 국내 분유 매출액 감소폭 축소 증인 점 긍정적. 수출분유 1Q18 70억원, 2Q18 110억원 달성, 3Q18 120억원 예상되며 전기비 증가세 유지. 18년 400억원 달성을 가능성은 높은 상황

오뚜기 (007310)

수산물류(미역, 치마, 다시마, 통조림 등) 한 자리 수 후반 감소. 면류(라면, 당면, 국수, 냉장면 등) 한 자리 수 중반 증가. 라면류 한 자리 수 중반 증가. 쌀류(즉석밥, 씻어나온쌀, 컵밥) 한 자리 수 후반 증가. 유자류(참기름, 식용유, 마가린, 쇼트닝, 고급유) 한 자리 수 초반 감소. 냉동식품류(만두, 냉동피자, 냉동밥 등) 한 자리 수 초반 감소. 기타류(선물세트 등) 한 자리 수 초반 감소

Compliance Notice

동 자료는 작성일 현재 사전고지와 관련한 사항이 없습니다. 당사는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과 계열회사의 관계가 없으며 2018년 11월 19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유가증권(DR, CB, IPO, 시장조성 등) 발행 관련하여 지난 6개월 간 주간자료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당사는 2018년 11월 19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는 2018년 11월 19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김정욱)

동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동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동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동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